

2026.07.06.

VOL.596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FOCUS

AI·바이오·안보 산업 공동 서명으로 본격화된 합성 DNA 스크리닝 의무화 입법 추진

CONTENTS

※ 본 내용은 동향 조사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01

FOCUS

AI·바이오·안보 산업 공동 서명으로 본격화된 합성 DNA 스크리닝 의무화 입법 추진

1

02

무역통상

인도, 미국 시장 의존 탈피를 위해 브라질을 제약 수출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

5

스위스 제약업계,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 대상 가능성 경고

5

아우로빈도 파마, 래닛 컴퍼니 2억 5,000만 달러에 인수 완료

5

영국-중국, 제15차 합동 경제무역위원회 개최 ... 서비스 수출 확대 추진

6

브라질, 의약품 수입 65억 달러로 급증 ... 제약 무역 적자 심화

6

한국, 2025년 제약 수출 역대 최초 100억 달러 돌파

6

인도 제약사, 중국 시장 공략 난항 ... 대중 제약 수출 11.5% 감소

7

영국 의학저널, 미영 제약 협정으로 22만 9,000명 초과 사망 가능성 경고

7

벨기에, 미국 관세 불확실성 대응 위해 대미 무역 모니터링 도구 공개

7

03

의료 인공지능

글로벌 제약업계, AI 도입 신약 개발·임상시험·의학 문서화 고영향 분야에 집중

8

인실리코 메디슨,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참가 ... AI·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성과 공유

8

바리스트, 의료 영상·EHR 대상 AI 악성코드 탐지 엔진 'DICOM 탐지 엔진' 출시

9

에이아이트릭스, 요코하마시립대학과 의료 AI 기기 공동 연구 양해각서 체결

9

유타주, AI 기반 처방전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 의료계 안전성 우려 제기

10

스킨 애널리틱스, AI 피부암 진단 앱 'DERM 제로' 유럽 최고 등급 CE 마킹 획득

10

미드저니, 전신 초음파 스캐너 '미드저니 스캐너' 개발 발표

11

구글, AI 검색 가이드 발표 ... 의료기관 환자 유입 전략 변화 불가피

11

GLOBAL BIO-HEALTH INDUSTRY TREND

※ 환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월 평균

04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노보 노디스크, 내부 IT 시스템 무단 접근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공개	12
모더나, mRNA 독감 백신 'mRNA-1010'으로 FDA 자문위원회 만장일치 지지 획득	12
노보 노디스크, 중국 시장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알약 허가 신청 계획 발표	13
키노바, 창립 20주년 맞아 임상 환경 특화 의료용 로봇 팔 'KIMA' 출시	13
겔웨이대학, 6,450만 유로 규모 '린 의료기기 센터'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	14
아다지오 메디컬, 차세대 심실 절제 시스템 'vCLAS ULTA'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 획득	14
EU, 화장품 옴니버스 VI 합의 ... CMR 물질 퇴출 일정 단축 및 나노물질 고지 의무 유지	15
유니바 솔루션스-아메리칸 디스틸링, EMEA 지역 천연 식물 추출물 독점 유통 파트너십 확대	15

05

의료서비스

페디아트릭스 메디컬 그룹, 신생아·소아 전문 원격의료 서비스 'MD 텔레메디신' 확대	16
인도 케랄라주, '인도-아랍 커넥트 2026' 개최해 중동 관광 교류 확대	16
방콕 두잇 메디컬 서비스, 'BDMS 웰니스 클리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추진	17
KPJ 헬스케어, 2025 회계연도 실적 및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목표 발표	17
대만 국립중산대학교-카오슝 재향군인 종합병원, AI 헬스케어 협력체계 강화	18
글로벌 치과관광 시장, 디지털헬스 통합이 필수요건으로 주목	18
말레이시아 정부, 나디 센터에 원격의료 및 AI 건강검진 서비스 도입 확대	19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대상 '원정출산' 네트워크 단속 강화	19

06

글로벌 행사

20

FOCUS AI·바이오·안보 산업 공동 서명으로 본격화된 합성 DNA 스크리닝 의무화 입법 추진

1 합성 DNA 스크리닝 입법 요구와 산업 연합 서명의 이례성

시장 배경 및 현황

- 2026년 6월 4일 △오픈AI(OpenAI)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앤트로픽(Anthropic) △마이크로소프트 AI(Microsoft AI) 등 주요 AI 기업과 △생명공학 △공중보건 △국가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미국 의회에 합성 DNA(Synthetic DNA)·합성 RNA(Synthetic RNA) 주문 심사 및 구매자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연방법 제정을 요청함
- 이는 AI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가 위험 병원체를 설계·재현할 수 있는 지식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의학적 이익과 생물보안(Biosecurity)* 리스크 간 균형 확보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 △바이러스 △세균 △해충 △외래종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유해한 생물학적 요인이 환경, 농축산업, 그리고 인체 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예방적 조치와 대책
-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AI 기업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산업 영역의 규제 입법을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은 AI 기업의 바이오안보 거버넌스 참여 방식이 자율 규제 차원을 넘어 공공 입법 요청으로 확장되는 이례적 사례로 평가됨

기존 자율 규제 체계의 한계와 입법 요구 전환

- 기존에는 합성 DNA 업계가 2009년 설립된 국제유전자합성컨소시엄(International Gene Synthesis Consortium, IGSC)**을 통해 자율 규제 체계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구속력 부재와 비회원사 적용 불가라는 구조적 공백으로 인해 기존 자율 체계만으로는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입법 요구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함
** 유전자 합성 기술의 오용을 막고 생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로벌 DNA 합성 기업들의 자율적 산업 연합
- 이에 따라 서명 연합은 합성 핵산(Synthetic Nucleic Acid)*** 제공업체와 합성 장비 제조사가 ①고객 적법성 확인 ②우려서열(Sequence of Concern, SOC)**** 검사 ③주문·서열 데이터 기록 보관을 수행해야 하며, 주(州)별 규제 불일치를 막기 위한 일관된 국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자연에서 추출한 유전물질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합성한 DNA나 RNA 등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olynucleotide, PN)
**** 생물학적 무기로 오용되거나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유전자 합성 및 연구 시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검증해야 하는 유전자 서열
- 한편 서한 제출 시점에 이미 「생물보안 현대화 및 혁신법(Biosecurity Moderniz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26, S.3741)」이 의회에서 발의·논의 중이었던 만큼, 이번 서명이 입법화에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서명 연합 구성과 산업적 합의

- 서명 연합에는 AI 기업 경영진뿐 아니라 △DNA 합성 기업 임원 △노벨상 수상 과학자 △전직 국방·안보 관료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번 요구가 범부문적 합의에 기반함을 보여줌
- 앤트로픽은 자사 클로드(Claude) 모델이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 기반 유전자치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일 역량이 생물보안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AI 기업 스스로 기술 위험을 인정하고 규제를 요청한 사례로 해석됨
***** 유전공학을 통해 치료용 유전자를 인체 세포 내로 안전하게 운반하는 핵심 바이러스 전달체

2 합성 DNA 스크리닝 기술 구조와 현행 규제 체계 분석

합성 핵산의 이중용도 위험 메커니즘

- 합성 핵산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만으로 DNA·RNA를 인공 합성하는 기술로 mRNA* 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나, 동일한 기술이 위험 병원체 재현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속성을 지님

*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세포 내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Ribosome)으로 전달하는 단백질 합성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유전물질

** 동일한 △지식 △기술 △물질이 합법적 연구 및 산업에도, 무기 개발 등 유해 목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속성

- 과거에는 위험 생물학 연구 수행에 박사급 전문 지식과 실험 경험이 필수적이었으나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복잡한 생물학적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중용도 위험은 AI 발전과 맞물려 합성생물학 도구의 접근성과 AI 안내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위험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
- 다만 서명 연합은 AI의 생물학 무기 실질 제작 역량에 대한 증거는 아직 존재되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AI가 이미 박사급 수준을 상회하는 전문 생물학 지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규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현행 자율 규제 체계의 구조와 한계

- 국제유전자합성컨소시엄(IGSC) 회원사는 합의된 스크리닝 프로토콜(Harmonized Screening Protocol)에 따라 △위험 병원체 서열 포함 여부 검사 △고객 신원 검증 △주문 기록 보관을 수행해 왔으며,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 한림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의 보고서에 따르면 IGSC 회원사는 전체 글로벌 합성 DNA 공급량의 약 80%를 차지함
- 그러나 나머지 약 20%는 자율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으며,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2010년 최초 발표·2023년 개정된 「합성 이중나선 DNA 제공자 스크리닝 프레임워크 지침(Screening Framework Guidance for Providers of Synthetic Double-Stranded DNA)」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관련 내용 보기〉 머물러 있어, 비회원사 및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이 부재한 상태임



입법안 핵심 구조 비교: S.3741 vs H.R.3029

- 현재 의회에 발의된 두 법안은 규제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①「생물보안 현대화 및 혁신법(Biosecurity Moderniz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26, S.3741)」은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DoC) 장관이 의무 규정을 공포하도록 하는 강제 규제 방식을 채택한 반면, ②「핵산 표준 및 생물보안법(Nucleic Acid Standards for Biosecurity Act, H.R.3029)」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주도의 자발적 표준 지원 방식을 지향함
- 두 법안 모두 AI의 생물학적 맥락 적용 위험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이는 입법 방향과 무관하게 AI-바이오 융합 위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합성 DNA 스크리닝 규제 체계 비교: IGSC 자율 규제 vs S.3741·H.R.3029 입법안			
구분	IGSC 자율 규제	S.3741	H.R.3029
법적 성격	자발적 업계 프로토콜	상무부 의무 규정 공포	NIST 지원 자발적 표준
서열 스크리닝	회원사에게 한해 시행	전체 공급자 의무화	표준 개선 지원
고객 신원 검증	회원사 자체 기준	출하 전 의무 확인	컨소시엄 기반 모범 사례 개발 지원
주문 기록 보관	회원사 내부 보관	수사 지원용 의무 보관	별도 규정 없음
이행 강제 수단	없음	법무부 민사소송 가능	없음

[자료] IGSC, Congress.gov, S.3741, Congress.gov, H.R.3029

3 산업·시장 파급효과 및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합성생물학·유전자치료 산업에 대한 규제 영향

- 합성 DNA 스크리닝이 의무화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는 합성 핵산 제공업체로, △서열 스크리닝 인프라 구축 △고객 검증 시스템 운영 △주문 기록 보관 체계 정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 다만 이미 국제유전자합성컨소시엄(IGSC) 프로토콜을 준수해 온 대형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부담으로 적응 가능한 반면, 비회원 소규모 공급자와 벤치탑 신디사이저(Benchtop Synthesizer)* 제조·판매사는 신규 규제의 핵심 적용 대상이 되어 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됨

* 실험실 작업대 위에 놓일 수 있는 소형 DNA-RNA 합성 장비로,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합성 핵산을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장비

-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S.3741은 인가된 고등교육기관 등 실적이 검증된 기관 고객에 대한 신속 검토 절차와 명백히 무해한 서열에 대한 스크리닝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규제 강화와 연구 혁신 저해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바이오안보 기술 시장의 신규 수요 창출

- 글로벌 기술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25년 AI 단백질 설계 도구가 독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변형(패러프레이즈)해 구조와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스크리닝 소프트웨어의 탐지를 우회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패러프레이즈 프로젝트(Paraphrase Project)'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DNA 합성기업의 기존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과해 탐지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 이는 기존 정적 데이터베이스 기반 서열 대조 방식만으로는 AI가 설계한 신규 위험 서열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 자체에 대한 고도화 수요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함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도 AI 생체설계 도구로 인한 신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스크리닝 표준화 및 벤치마크 데이터셋 개발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스크리닝 기술 고도화가 정부와 산업의 공동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합성 DNA 스크리닝 의무화에 따른 분야별 산업 파급효과

분야	변화 내용	파급효과
합성 핵산 공급자	서열 스크리닝·고객 검증·기록 보관 의무 신설	대형 IGSC 회원사 중심의 시장 집중 가속
유전자치료 및 mRNA 의약품 기업	원료 조달 절차 일부 영향, 인가 기관 신속 검토 적용	중장기적 공급 안정성 확보
벤치탑 합성기 제조사	S.3741 적용 대상에 장비 제조·유통사 포함	장비 판매 시 고객 검증 의무 추가
바이오안보 기술 기업	스크리닝 소프트웨어·AI 위험평가 플랫폼 수요 창출	신규 B2B 바이오안보 기술 시장 형성

[자료] IGSC, Congress.gov, S.3741, Microsoft Signal Blog

한국의 정책·산업적 시사점

- 한국은 2025년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연구개발 촉진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중용도 연구 감시 및 합성 핵산 스크리닝 등 안전·안보 측면의 제도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하여 생명과학 연구와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 및 고속화하는 인프라

- S.3741 원문에 따르면 동 법안은 미국 내 합성 핵산을 판매하거나 합성 장비를 유통하는 모든 사업자(Covered Provider)에게 적용되며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기관은 인증된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시장에 합성 핵산 제품과 장비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스크리닝 준수 인증 충족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

4 도전과제와 향후 전망

입법화 과정의 주요 제약 요인

- 합성 DNA 스크리닝 의무화의 기술적 실효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제약은 위험 서열 데이터베이스의 한계로, 정적 데이터베이스 기반 대조 방식은 이미 알려진 병원체 서열만을 포착할 수 있어 시가 새롭게 설계한 변형 서열까지 탐지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연구진이 미국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감독 하에 수행한 레드팀(Red Team)* 실험에서 38개 합성 DNA 공급업체 중 36개사(IGSC 회원사 12개사 포함)가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체(Genome) 재구성이 가능한 DNA 단편 주문을 적발하지 못한 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율 규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함
 - * 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침투를 시도하는 모의 테스트 기법
- 또한, 200염기쌍(bp) 미만의 짧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는 현행 IGSC 프로토콜의 주요 스크리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러한 짧은 서열은 표준 분자생물학 기법으로 조합되어 위험한 긴 서열로 재구성될 수 있어 또 다른 스크리닝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음
 - ** DNA-RNA를 구성하는 짧은 단일가닥 핵산 조각으로, 유전자 합성·증폭 실험에 널리 사용되는 기초 재료
- 한편 합성 DNA 공급업체 및 바이오산업 단체들은 측정 표준화와 실험실 역량 확충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될 경우 오탐지(False Positive) 증가에 따른 연구 비효율과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공중보건 진영과 준비 기간을 요청하는 산업계 간 조율이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중장기 전망 및 글로벌 바이오안보 거버넌스 체계화

-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핵산 합성 보안에 관한 측정 연구와 더불어 거버넌스 샌드박스(Governance Sandbox)***를 통한 적응형 규제 실험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정적인 일률 규제가 아닌 기술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유연한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신기술 관련 규제·표준을 실험적으로 시험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테스트 환경으로, 과도한 규제 부담 없이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
-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FAS)은 현행 바이오안보 거버넌스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빠른 생명공학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사이버보안 분야의 지속적 갱신 모델을 차용한 통합적 바이오안보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함

[출처] MobiHealthNews, 2026.06.15.;The Cryptonomist, 2026.06.04.;Sage Journals, 2024.02.13.;Congress.gov, 2026.01.29.;abhs.in, 2026.06.04.;NCBI, 2021.09.08.;IGSC, 2026.;Health Law & Policy Brief, 2026.03.29.;Quiver Quantitative, 2026.;HHS, 2010.10.19.;Science, AAAS, 2025.10.02.;Microsoft Signal Blog, 2025.10.02.;NIST, 2026.05.22.;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2025.05.26.;The Biosecurity Handbook, 2026.06.;Nature, 2026.01.15.;FAS, 2026.06.29.



인도, 미국 시장 의존 탈피를 위해 브라질을 제약 수출 신성장 거점으로 주목

India looks to Brazil as new pharmaceutical export growth engine to reduce U.S. market dependence

- 인도 제약 수출 업계가 △미국 시장의 약가 압박 △미국 식품의약국(FDA) 규제 강화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브라질을 우선 확장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2억 명 이상의 인구와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대체 처방을 강조하는 의료 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제약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
- 인도 제약사들은 미국·유럽 등 글로벌 규제 시장에서 쌓은 제네릭 의약품 제조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 직접적인 상업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브라질 진출 성공 시 인도 제약 수출 산업의 지리적 매출 구성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제약 수출 업계의 브라질 진출 가속화는 미국 관세 압박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Moneycontrol, 2026.06.29.;The Last 24, 2026.06.29.]



스위스 제약업계, 미국 무역법 제301조 조사 대상 가능성 경고

Swiss pharmaceutical industry warns of potential U.S. Section 301 trade investigation

- 스위스 제약기업협회(Interpharma) CEO가 스위스가 의무 의료보험 약가 인하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법률 조항
- 또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에 독일 및 스위스를 대상으로 한 제301조 조사 개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스위스의 대미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24년 기준 355억 달러(한화 54조 2,191억 원)에 달하며, 스위스 제약·화학 제품은 지난해 스위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미국의 제301조 조사 압박이 독일에 이어 스위스로 확산되면서 유럽 주요 제약 수출국들의 약가 정책 자율성과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Reuters, 2026.06.27.;Economic Times Pharma, 2026.06.29.]



아우로빈도 파마, 래넷 컴퍼니 2억 5,000만 달러에 인수 완료

Aurobindo Pharma completes \$250 million acquisition of U.S. Lannett Company

- 인도 제약사 아우로빈도 파마(Aurobindo Pharma)가 6월 29일 미국 제약사 래넷 컴퍼니(Lannett Company)를 2억 5,000만 달러(한화 3,818억 원)에 인수 완료하였음
- 또한, 아우로빈도 파마는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에 연간 40억 도스(Dose) 규모 제조 시설과 비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Non-Opioid Controlled Substances)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미국 내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함
- 이번 인수는 아우로빈도 파마가 미국 현지 제조 역량을 강화해 미국 매출 20억 달러(한화 3조 546억 원)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미국의 제약 관세 압박 속에서 인도 제약사의 현지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Sahi, 2026.06.30.;Drugstore News, 2026.06.30.]



영국-중국, 제15차 합동 경제무역위원회 개최 ... 서비스 수출 확대 추진

UK and China hold 15th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to boost services exports

- 영국 산업통상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DBT) 장관과 중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이 7월 1일 런던 맨션하우스(Mansion House)에서 제15차 영국-중국 합동 경제무역위원회(UK-China Joint Economic and Trade Commission, JETCO)를 공동 주재했으며, 영국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무역 부스터(Trade Booster)' 이니셔티브를 출시함
- 행사에서는 영국계 글로벌 은행 바클레이스(Barclays)의 팬더본드(Panda Bond)* 발행과 영국 공인관리회계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CIMA)의 중국과의 회계 자격증 상호 인정 추진 성과도 공개됨

* 외국 기업이 중국 국내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

- 영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관세 면제를 확보한 이후,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 확대에도 적극 나서면서 복수 교역국과의 동시 협력을 추진하는 영국의 통상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음

[Wired-Gov, 2026.07.01.;Yahoo Finance, 2026.07.01.]



브라질, 의약품 수입 65억 달러로 급증 ... 제약 무역 적자 심화

Brazil's drug imports surge to \$6.5 billion as pharmaceutical trade deficit widens

- 브라질의 2026년 1월~5월 의약품 수입액이 65억 3,000만 달러(한화 9조 9,731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했으며, △오젠펙(Ozempic) △위고비(Wegovy) △마운자로(Mounjaro) 등 비만 치료제의 수요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면역 △항암 △바이오 관련 의약품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임
- 2025년 연간 의약품 무역 적자는 131억 달러(한화 20조 107억 원)로 2019년 59억 달러(한화 9조 11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주요 공급국은 ①미국(24%) ②독일(15%) ③스위스(9%) ④아일랜드(8%) 순임
- 브라질 제약업계는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생산 역량 부족 △자금 조달 한계 △기술 혁신 지연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이 제약 공공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기술적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Valor International, 2026.07.01.;DatamarNews, 2026.07.01.]



한국, 2025년 제약 수출 역대 최초 100억 달러 돌파

South Korea's pharmaceutical exports surpass \$10 billion for the first time in 2025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제약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04억 4,000만 달러(한화 15조 9,497억 원)를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 달러(한화 15조 2,730억 원)를 돌파했으며, 제약 무역흑자도 41.9% 급증한 15억 6,000만 달러(한화 2조 3,826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이러한 성장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CDMO) 역량 강화 및 수출 확대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성과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Biosimilar)·CDMO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미국 관세 압박 속에서도 한국 제약 산업의 고부가가치 바이오 분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BizzBuzz, 2026.07.02.;IANS Live, 2026.07.02.]



인도 제약사, 중국 시장 공략 난항 ... 대중 제약 수출 11.5% 감소

Indian drugmakers struggle in China as pharmaceutical exports drop 11.5%

- 인도의 2025년~2026년 대중 제약 수출액이 전년 대비 11.5% 감소한 2억 8,742만 달러(한화 4,389억 원)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인도 전체 제약 수출은 2% 증가한 310억 달러(한화 47조 3,461억 원)로 성장한 것과 달리 중국 시장에서만 역성장을 기록함
- 인도 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 △닥터 레드스(Dr. Reddy's) △시플라(Cipla) 등이 중국 공공병원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입찰에 도전했으나, 중국 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저가 경쟁과 베이징의 국내 조달 우선 정책으로 시장 진입에 실패함
- 역설적으로 인도는 2024년~2025년 기준 전체 제약 수입의 38.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대중 제약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료의약품(APIs)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해소가 인도 제약 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Moneycontrol, 2026.07.02.;TradingView, 2026.07.02.]



영국 의학저널, 미영 제약 협정으로 22만 9,000명 초과 사망 가능성 경고

British Medical Journal warns of 229,000 excess deaths from U.S.-UK pharmaceutical deal

- 영국 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 BMJ)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영 제약 협정으로 영국이 2036년까지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의약품 지출 비중을 10%에서 12%로 늘려야 하며, 이에 따른 연간 최대 88억 파운드(한화 17조 9,174억 원)의 추가 의약품 지출이 다른 필수 예산을 축소시켜 22만 9,000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NHS 예산이 고정된 상황에서 의약품 지출 증가가 △심혈관 △호흡기 △암 등 필수 의료서비스 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성인 사회 돌봄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초과 사망자 수가 29만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힘
- 영국 정부는 미영 제약 협정이 환자들에게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신약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나, 연구진은 NHS 환자 건강보다 제약사 이익을 우선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무역 협상과 공중 보건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KTEN, 2026.07.02.;Al Jazeera, 2026.07.02.]



벨기에, 미국 관세 불확실성 대응 위해 대미 무역 모니터링 도구 공개

Belgium launches U.S. trade monitoring tool to help businesses navigate tariff uncertainty

- 벨기에 경제부(Ministry of the Economy)가 7월 2일 미국과의 무역 현황을 6개월마다 업데이트하는 대미 무역 모니터링 도구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운영하는 시장접근 플랫폼 '엑세스투마켓츠(Access2Markets)'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함
- 2025년 벨기에의 대미 수출은 △제약(-3.9%) △자동차(-22%) △철강·구리 등 기초금속(-30.3%) 등 주요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미국은 벨기에의 제4대 교역국으로 지정학적·통상 갈등 속 수출 감소 추세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 벨기에 경제부 장관은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전략적·경제적 이견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모니터링 도구가 기업들의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Belga News Agency, 2026.07.02.;The Brussels Times, 2026.07.02.]

01 글로벌 제약업계, AI 도입 신약 개발·임상시험·의학 문서화 고영향 분야에 집중

-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GlobalData)의 '2026년 제약바이오산업 현황: 상반기 점검(State of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2026 Mid-Year Update)'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 전문가 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4%가 특정 기능 분야에 AI를 부분 도입했으며, 25%는 파일럿(Pilot)* 또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PoC)** 단계에 있다고 응답함

* 전면 도입 전 소규모 시범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

**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는 초기 시험 단계

- AI 도입 분야는 ①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표적 선별이 59%로 1위를 차지했으며 ②임상시험 설계·환자 모집(45%) ③의학 문서 작성(41%) 순으로 나타났으며, 글로벌데이터 제약 분석가는 기업들이 전사적 AI 도입보다 실질적 성과가 검증된 특정 업무에 AI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함
- 생산성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31%가 향후 12개월 내 AI로 인한 R&D 생산성이 11%~20%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응답자의 30%는 5%~10%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AI 공동 혁신 연구소(AI Co-Innovation Lab) 설립 등 대형 협력 사례가 제약업계의 AI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과 주요 제약사 간 파트너십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응답자들이 비용 절감에 가장 낙관적인 반면 유럽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AI 기반 기술이 단순한 실험 지원 수단을 넘어 제약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비용 구조와 투자 효율성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됨

[GlobalData, 2026.06.18.:Retail Pharmacy Magazine, 2026.06.19.]

02 인실리코 메디슨,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 참가 ... AI·양자 컴퓨팅 신약 개발 성과 공유

- 홍콩 AI 신약 개발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이 2026년 6월 22일~25일 미국 샌디에이고(San Diego)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6(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에 참가해 자사 AI 플랫폼 '파마.AI(Pharma.AI)'의 핵심 역량과 최신 R&D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며, △제약·바이오 파트너 △투자자 △연구자들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함



**Insilico
Medicine**

* 전 세계 약 2만 명의 제약·바이오업계 리더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텍(Biotech) 연례 콘퍼런스

- 인실리코 메디슨 CEO는 4개 세션에 연사로 참가해 △AI 기반 신약 발굴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활용 연구 △임상 개발 분야의 최신 성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의 글로벌 사업 개발 영향과 도전적 표적을 위한 스마트 파이프라인 구축도 주요 주제로 다루어짐

** 양자역학 원리를 활용해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과 신약 후보물질 탐색에 활용되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

- 인실리코 메디슨은 같은 날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 열린 '글로벌 여성 건강 자본 및 산업 서밋(Global Women's Health Capital & Industry Summit)'에도 참가해 'AI 기반 신약 개발을 통한 여성 건강 미충족 수요 해결(AI-Driven Drug Discovery for Unmet Needs in Women's Health)'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함
- 인실리코 메디슨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 주기(End-to-End) AI R&D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한 신약 개발 패러다임 구현을 목표로 함
- 이번 참가는 AI와 양자 컴퓨팅의 융합이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AI 신약 개발 기업의 글로벌 제약·바이오 협력 생태계 내 전략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News-Medical, 2026.06.18.: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06.25.]

03 바리스트, 의료 영상·EHR 대상 AI 악성코드 탐지 엔진 'DICOM 탐지 엔진' 출시

- 아이슬란드 사이버보안 기업 바리스트(Varist)가 △의료 영상 표준 프로토콜 다이콤(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DICOM)*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의료 영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표적으로 하는 악성코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DICOM 탐지 엔진(DICOM Detection Engine™)'을 출시했으며, 이는 대용량 파일 스캐닝과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결합해 밀리초(ms) 단위로 위협을 탐지함

*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의료 영상 파일의 저장 및 전송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

** 의료 영상 데이터를 중앙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임상 현장에 전송하는 디지털 의료 영상 관리 시스템



- 의료 영상 환경은 하루 수백만 건의 파일을 처리하는 구조적 특성상 AI 기반 악성코드의 주요 공격 표적이 되고 있으며, 기존 보안 솔루션은 최대 3GB에 달하는 대용량 의료 영상 파일 내 위협을 탐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DICOM 탐지 엔진은 △악성 헤더 분석(Malicious Header Analysis) △3GB 이하 전체 파일 스캐닝 △제로데이(Zero-Day)*** 위협 탐지 △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전용 탐지 등을 핵심 기능으로 제공함

*** 아직 알려지지 않아 보안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

****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 의료 AI 도입 확산으로 EHR·PACS 시스템이 더욱 복잡해지는 가운데, 의료 특화 사이버보안 기술이 의료 데이터 보호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Yahoo Finance, 2026.06.16.;Business Wire, 2026.06.16.]

04 에이아이트릭스, 요코하마시립대학과 의료 AI 기기 공동 연구 양해각서 체결

- 한국 의료 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 Tricks) 일본 법인이 일본 공립대학법인 요코하마시립대학교(Yokohama City University)와 AI 의료기기 공동 연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병원의 임상 경험과 에이아이트릭스의 의료 AI 기술을 결합해 일본 의료 환경에 적용 가능한 AI 의료기기 연구·실증을 공동 추진할 예정임
- 공동 연구는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병원 산하 차세대 임상연구센터(Next Generation Clinical Research Center)의 지원 하에 중환자실 및 내과 분야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환자 상태 변화 조기 감지 △의료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을 연구함
- 일본은 초고령화 심화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의료 효율성을 높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모니터링과 상태 악화 예측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에이아이트릭스는 2025년 3월 일본 법인 설립 이후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AI 의료기기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요코하마 지역 전반의 의료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양해각서는 에이아이트릭스가 일본 의료 AI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로, 한국 의료 AI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 접근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새로운 모델로 여겨짐

[Venture Square, 2026.06.16.;IT Business Today, 2026.06.18.]

05 유타주, AI 기반 처방전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 의료계 안전성 우려 제기

- 미국 유타(Utah)주가 AI 기반 처방전 갱신(Prescription Refill)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미국 헬스테크(Health Tech) 기업 닥트로닉(Doctronic)이 개발한 시스템이 환자의 처방전 갱신 요청을 검토해 △30일 △60일 △90일 처방 갱신 여부를 권고하되 최종 승인은 면허 의료인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현재 갱신 가능한 의약품은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알레르기 △정신건강 분야의 기존 처방 의약품에 한정되며, 신규 처방 및 규제 물질(Controlled Substance)*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 남용 및 의존성 위험으로 인해 정부가 △생산 △유통 △처방을 엄격히 통제하는 의약품으로 수면제·일부 자극제 등이 포함됨
- 닥트로닉은 AI 외에도 약 12가지 비AI(기존 시스템 및 규칙) 기반 안전장치를 탑재해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타주는 안전 기준 충족 시 일부 갱신 처방을 의사 검토 없이 약사에게 직접 전송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유타주 의료 면허 위원회(Medical Licensing Board)는 프로그램 시행 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일럿 중단을 요청했으나, 외부 연구팀의 조작·적대적 환경 테스트(Manipulative or Hostile Testing)**에서 시스템 취약점이 발견됐음에도 유타주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
- ** AI나 시스템이 고의적인 방해나 악의적 공격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보안 테스트 기법
-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은 AI에게 어느 수준의 의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검증하는 사례로, 그 결과가 미국 전역의 유사 시스템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NewsNation, 2026.06.19.;Yahoo News, 2026.06.19.]

06 스킨 애널리틱스, AI 피부암 진단 앱 'DERM 제로' 유럽 최고 등급 CE 마킹 획득

- 영국 AI 의료기기 기업 스킨 애널리틱스(Skin Analytics)가 스마트폰으로 피부암을 자율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DERM 제로(DERM Zero)'에 대해 유럽 최고 등급인 클래스 III(Class III) CE 마킹*을 획득함
- *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에 따른 최고 위험 등급 인증으로, 심장박동기 등 생명유지 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기기에 부여됨
- DERM 제로는 의료 전문가가 스마트폰으로 병변 부위를 촬영하면 수 초 내에 임상 권고안을 제공하며, △피부암 전체 탐지율 98% △흑색종** 민감도(Melanoma Sensitivity) 97% △음성 예측도(Negative Predictive Value, NPV)*** 99.8%를 달성해 피부과 전문의 평균 NPV 98.9%를 상회함
- ** 피부 색소세포에서 발생하는 가장 악성도가 높은 피부암 유형
- *** AI가 암 음성으로 판정한 사례 중 실제 비암으로 확인된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암 미검출 위험이 낮음을 의미함
- DERM 제로의 핵심 기술인 DERM은 2020년부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산하 24개 병원에서 운영되어 23만 명 이상의 환자를 평가하고 2만 건 이상의 피부암을 탐지한 임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탐지 결과는 조직병리검사(Histopathology)****로 검증됨
- **** 병변 조직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의학적 진단의 표준 방법
- 영국에서는 피부암 긴급 의뢰 건수가 지난 10년간 170% 급증해 전문의 대기 시간이 수개월에 달하는 상황으로, DERM 제로는 전문 장비 없이 ①의료기관 ②약국 ③지역 보건센터에서 즉각적인 임상급 피부암 평가를 가능하게 해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CE 마킹 획득은 스마트폰이 전문 의료장비를 대체하는 임상급 진단 도구로 인정받은 첫 사례로, AI 기반 피부암 진단이 일상적인 의료서비스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BriefGlance, 2026.06.16.;Med-Tech Insights, 2026.06.16.]

07 미드저니, 전신 초음파 스캐너 ‘미드저니 스캐너’ 개발 발표

- 미국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Midjourney)가 의료 사업 진출을 위해 ‘미드저니 메디컬(Midjourney Medical)’을 출범하고 60초 이내에 전신을 스캔하는 초음파 기반 의료 스캐너 ‘미드저니 스캐너(Midjourney Scanner)’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휴대용 초음파 기기 기업 버터플라이 네트워크(Butterfly Network)와 체결한 라이선싱(Licensing) 계약을 통해 초음파 온 칩(Ultrasound-on-Chip)* 기술을 독점 활용함

* 초음파 송수신 소자를 반도체 칩 형태로 집적해 기존 대형 초음파 장비를 소형화한 기술

- 미드저니 스캐너는 환자가 수조(Shallow pool of water)에 천천히 내려가면 50만 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된 링형 배열 구조(Ring-Shaped Array)가 모든 각도에서 초음파를 발사해 반사파를 분석하며, 기존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에 준하는 정밀 전신 3D 영상 생성을 목표로 함
 - 기존 전신 MRI가 60분~90분이 소요되고 고비용 및 폐쇄 공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 미드저니 스캐너는 60초 이내 스캔을 목표로 하며 미드저니는 202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스캐너를 갖춘 자체 스파(Spa)를 개설할 계획임
 - 미드저니는 △향후 12개월간 알고리즘 고도화 연구 시험 2세대 하드웨어 설계 △202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진단 허가 취득 및 맞춤형 반도체(Custom Silicon)** 기반 3세대 기기 출시 △2031년까지 전 세계 5만 대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 특정 기능을 위해 설계된 전용 반도체로, 범용 칩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이 높음
- AI 이미지 생성 기업이 의료 하드웨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이번 사례는 AI 기업의 헬스케어 진출이 새로운 방식으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Midjourney

[PetaPixel, 2026.06.18.; Engadget, 2026.06.23.]

08 구글, AI 검색 가이드 발표 ... 의료기관 환자 유입 전략 변화 불가피

- 미국 빅테크(Big Tech) 기업 구글(Google)이 ‘검색 생성형 AI 기능 최적화 가이드(A Guide to Optimizing for Generative AI Features in Search)*’를 발표하면서 의료기관의 환자 유입 방식에 변화가 예고됐으며, 미국 의료 경영 전문 매체 메디컬 이코노믹스(Medical Economics)의 2025년 조사에서 환자의 4분의 1 이상이 AI 추천이 의사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 구글이 AI 검색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통합해 발표한 문서로, 생성형 AI(Generative AI) 검색 결과 노출을 위한 웹사이트 최적화 방법을 안내함

- 가이드는 ①전문성 ②경험 ③권위성 ④신뢰성을 의미하는 EEAT(Expertise, Experience, Authoritativeness, Trustworthiness) 기준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 분야에서는 모든 의사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므로 단순 자격 나열보다 특정 환자군에 대한 진료 철학과 임상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가 AI 추천 결과에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됨
- 실제 사례로 미국 인디애나(Indiana)주 기능의학 클리닉이 자격 중심 콘텐츠에서 진료 철학 및 환자 유형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개편한 결과, 콘텐츠 변경만으로 챗GPT(ChatGPT)와 클로드(Claude) 대상 AI 검색 노출률이 27%에서 82%로 급상승하였음
- AI 검색이 환자의 의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자격증 중심에서 환자 맞춤형 임상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중심으로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전환이 AI 시대 환자 유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됨

[Medical Economics, 2026.06.17.; Ethereal Minds Digital, 2026.06.19.]

09 노보 노디스크, 내부 IT 시스템 무단 접근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 공개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내부 IT 시스템 일부에 대한 무단 접근(Unauthorized Access)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를 공개했으며, 일부 개인정보 노출 및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외부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 중임



- 노출된 정보는 △환자 식별 번호 △임상시험 참여 정보 △성별·출생연도 △바이오마커(Biomarker)* △건강·면역원성(Immunogenicity)** 데이터 △흡연·음주·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등 생활 습관 정보가 포함된 가명 처리 데이터(Pseudonymized Data)***이며, 성명 등 직접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즉각적인 환자 위험은 없다고 밝힘

* △혈액 △소변 △조직 등에서 측정되는 생물학적 지표로, 질병 진단·치료 반응 평가에 활용됨

** 백신·치료제에 대한 면역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개인 식별 정보를 코드나 번호로 대체해 직접 신원 파악이 어렵게 처리한 데이터

- 노보 노디스크는 대응 조치로 일부 내부 IT 시스템을 일시 오프라인 전환 후 단계적으로 복구 중이며, 핵심 사업 운영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음
- 다만, 일부 임상시험 참가자 관련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으며 의료 전문가 대상 서한을 통해 △이메일 △전화 △왓츠앱(WhatsApp)을 통한 표적 피싱(Phishing)**** 시도에 유의할 것을 권고함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물을 사칭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 방식

- 이번 사고는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시험 데이터와 의료 전문가 개인정보가 동시에 표적이 되는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된 사례로, 제약·바이오 업계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Industrial Cyber, 2026.06.16.;Shield Workz, 2026.06.17.]

10 모더나, mRNA 독감 백신 'mRNA-1010'으로 FDA 자문위원회 만장일치 지지 획득

- 미국 제약·바이오사 모더나(Moderna)의 mRNA 기반 독감 백신 'mRNA-1010'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서 9:0 만장일치로 50세~64세 및 65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의 효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평가를 획득했으며, FDA는 2026년 8월 5일까지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mRNA-1010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표준 용량 독감 백신 대비 독감 발병 위험을 27% 감소시켰으며, 이번 지지는 FDA가 올해 초 검토를 이례적으로 거절했다가 공개 반발 끝에 번복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mRNA-1010 허가 과정의 극적인 반전을 보여줌
- 앞서 FDA 전 백신 담당 관리는 모더나의 임상시험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신청서 검토를 거부했으나, 해당 관리 및 전 FDA 국장의 퇴임 이후 후임 체제에서 mRNA-1010 검토가 재개됨
- 자문위원회는 임상시험 기간이 단 한 시즌에 불과하고 인플루엔자 B(Influenza B)* 대비 효능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한계를 지적했으나, 모더나가 최대 80만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독감 유행 시즌에 걸쳐 검증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 만장일치 지지의 주요 배경이 됨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두 가지 주요 유형 중 하나로, A형보다 증상이 경미하나 매년 유행하는 계절성 독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mRNA-1010 허가 시 mRNA 기술이 COVID-19에 이어 계절성 독감 예방에도 공식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되며, 신속한 바이러스 변이 대응이 가능한 mRNA 플랫폼이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여겨짐

[BioPharma Dive, 2026.06.18.;BioSpace, 2026.06.19.]

11 노보 노디스크, 중국 시장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 경구용 알약 허가 신청 계획 발표

-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의 경구용 알약 제형을 중국 시장에 조만간 허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현재 중국에서 위고비 주사제 출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전략임
- * 노보 노디스크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ucagon-like Peptide-1,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 비만 치료 주사제
- ** 비만치료제의 핵심 유효 성분으로, 식욕 억제와 혈당 조절을 통해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냄
- 중국은 성인 비만율이 약 19%에 달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노보 노디스크는 중국을 위고비의 핵심 성장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고 현재 중국 내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한 투자도 검토 중임
-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위고비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됐으나 최근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해 공급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중국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함
- 다만, 중국에는 GLP-1 기반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현지 제약사들이 다수 존재하며 해당 기업이 노보 노디스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경쟁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핵심 전략 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노보 노디스크가 위고비 주사제에 이어 경구용 제형까지 선제적으로 허가 신청에 나선 것은 현지 경쟁사 대비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시장 선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주목됨

[Reuters, 2026.06.16.;Yahoo Finance, 2026.06.16.]

12 키노바, 창립 20주년 맞아 임상 환경 특화 의료용 로봇 팔 ‘KIMA’ 출시

- 캐나다 로봇 기업 키노바(Kinova)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산업용 기술을 의료용으로 전용하지 않고 임상 환경에 맞게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의료용 로봇 팔 ‘KIMA(Kinova Intelligent Medical Arm)’를 출시했으며, △복잡 외과 수술 △내시경(Endoscopy) △기관지경(Bronchoscopy)에 이르는 다양한 임상 적용을 지원함
- KIMA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표준 클래스 C(IEC 62304 Class C)*와 위험 관리 표준(ISO 14971)**을 기본 탑재했으며, 3kg 페이로드(Payload)*** 지원과 13kg 미만의 경량 설계로 별도 제어 박스 없이 수술실 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함
-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클래스 C는 소프트웨어 오작동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함
- **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위험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국제 표준으로, △위해 식별 △위험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함
- *** 로봇 팔이 들어올리거나 조작할 수 있는 최대 하중
- 각 관절에 이중 토크 센서(Torque Sensor)와 고급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해 관절 수준의 실시간 성능 감시가 가능하며, 외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개방형 아키텍처(Open Architecture)****와 EtherCAT***** 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컨트롤러리스(Controller-less) 설계로 기존 의료 플랫폼과의 통합이 용이함
- **** 특정 제조사나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자유롭게 연동 및 통합할 수 있는 설계 방식
- ***** 산업용 이더넷(Ethernet) 기반의 실시간 통신 프로토콜로, 고속 및 저지연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정밀 제어 시스템에 활용됨
- KIMA는 △미국 데이터 연결 플랫폼 기업 리얼타임 이노베이션스(Real-Time Innovations, RTI) △미국 의료기기 설계 기업 메드아큐티티(MedAcuity) 등 기술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기존 의료 시스템과의 연동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개발사가 모듈형 플랫폼을 활용해 임상 솔루션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번 출시를 산업용 로봇을 의료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임상 환경 특화 설계를 채택한 사례로, 수술 로봇 시장에서 모듈형·개방형 플랫폼 전략이 확산되는 전환점으로 여겨짐

[Kinova, 2026.06.11.;The Robot Report, 2026.06.18.]

13 갈웨이대학, 6,450만 유로 규모 ‘린 의료기기 센터’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

- 아일랜드 국가 연구 지원 기관 리서치 아일랜드(Research Ireland)가 아일랜드 정부의 4억 6,000만 유로(한화 8,089억 원) 규모 7개 국가 연구 네트워크 ‘린(Rinn)*’ 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450만 유로(한화 1,134억 원) 규모의 린 의료기기 센터(Rinn Medical Devices Centre) 주관 연구기관으로 아일랜드 갈웨이대학교(University of Galway)가 선정됨
- * 아일랜드 국가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분야별 전문 연구 네트워크로, 2026년 7월 운영 개시 후 8년간 운영될 예정
- 린 의료기기 센터는 고령화 관련 만성 질환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혁신에 집중하며, 2015년 설립된 큐람 리서치 아일랜드 의료기기 연구센터(CÚRAM Research Ireland Centre for Medical Devices)의 10년 이상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운영됨
- 갈웨이대학교는 린 의료기기 센터 주관 외에도 △린 AI(Rinn Artificial Intelligence) △린 첨단 치료법(Rinn Advanced Therapies) △린 에너지(Rinn Energy) △린 양자(Rinn Quantum) 센터의 주요 파트너로 참여하며, 총 7개 린 센터 모두와 협력하는 3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됨
- 7개 린 센터는 200개 이상의 산업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17개 연구 기관에 걸쳐 577명의 연구자와 800명의 박사과정생을 지원하며, △학계 △산업계 △의료계를 아우르는 다학제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이번 투자는 아일랜드 정부가 △의료기기 △AI △에너지 △양자과학 분야의 국가 연구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전략으로, 갈웨이대학교를 글로벌 의료기기 혁신 허브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University of Galway, 2026.06.10.; Tuam Herald, 2026.06.18.]

14 아다지오 메디컬, 차세대 심실 절제 시스템 ‘vCLAS ULTA’ FDA 임상시험계획 승인 획득

- 미국 의료기기 기업 아다지오 메디컬(Adagio Medical)이 지속성 단형 심실 빈맥(Sustained Mono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SMVT)* 치료를 위한 차세대 심실 절제 시스템 ‘vCLAS ULTA’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을 획득함



* 심실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으로, 심근 흉터 조직에 의해 유발되며 급사 위험이 높은 중증 부정맥

** FDA가 미승인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

- vCLAS ULTA 카테터(Catheter)는 약 영하 170°C의 초저온 절제(Ultra-Low Temperature Ablation, ULTA) 기술을 적용해 단일 동결 시술만으로 유효한 병변을 생성하며, 전임상 모델에서 기존 대비 절제 시간을 50%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에너지 전달 △내비게이션 △병변 제어 △시술 효율 개선을 목표로 설계됨
- 이번 세부 임상시험은 허혈성·비허혈성 심근병증(Cardiomyopathy)*** 환자의 흉터 매개 SMVT를 치료 대상으로 하며, 미국 내 여러 기관에서 55명의 환자를 단계적으로 등록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시판 전 임상시험으로 설계됨
- *** 심장 근육이 손상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허혈성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 발생하고 비허혈성은 그 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아다지오 메디컬의 vCLAS 냉각 절제 시스템(vCLAS Cryoablation System)은 현재 유럽 CE 마킹을 보유하고 있으며, ULTA 기술을 통해 심내막 접근만으로 심실 부정맥 전 범위를 치료할 수 있는 단일 다목적 카테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IDE 확장 승인은 아다지오 메디컬이 ULTA 기술의 임상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며, 심실 빈맥 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한 핵심 단계로 주목됨

[Business Wire, 2026.04.08.; MPO Magazine, 2026.06.17.]

15 EU, 화장품 옴니버스 VI 합의 ... CMR 물질 퇴출 일정 단축 및 나노물질 고지 의무 유지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화장품 옴니버스 VI(Cosmetics Omnibus VI)*’ 패키지에 잠정 합의했으며,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Reprotoxic, CMR)**을 함유한 화장품의 시장 퇴출 일정을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원안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도출함

* 유럽 화장품 규정(EU Cosmetics Regulation)의 전면 개정을 담은 EU 입법 패키지로, △성분 안전 기준 △나노물질 고지 △CMR 물질 퇴출 일정 등을 포괄적으로 재정비함

** △암 유발 △유전자 변이 △생식 기능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 EU 화장품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군

- 합의안에 따르면 CMR 물질 금지 발효 시 기업은 ①시장 출시 중단까지 6개월 ②유통 전면 중단까지 12개월의 전환 기간을 갖게 되며, 이는 EC 원안의 12개월 및 24개월보다 단축된 것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 CMR 물질을 계속 사용하려는 기업은 새로운 분류 고시 후 12개월 이내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에 따라 ①안전성 이유로 거부될 경우 출시 중단 3개월 및 유통 중단 9개월 ②더 안전한 대체 성분 존재를 이유로 거부될 경우 출시 중단 24개월 및 유통 중단 36개월의 단계적 퇴출 기간이 적용됨
- 나노물질(Nanomaterial)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EC가 행정 부담 완화를 이유로 삭제를 제안했으나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가 이를 거부해 고지 의무는 유지하되, 기존 6개월 사전 고지 기간은 단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EC는 법 시행 1년 후 대체 성분 분석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임
- 코스메틱스 유럽(Cosmetics Europe) 등 7개 뷰티·퍼스널케어(Personal Care) 업계 단체는 합의안이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달성했다며 환영했으며, 합의안은 공식 승인 후 EU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될 예정임

[European Parliament, 2026.06.17.; Personal Care Insights, 2026.06.18.]

16 유니바 솔루션스-아메리칸 디스틸링, EMEA 지역 천연 식물 추출물 독점 유통 파트너십 확대

- 미국 유통 기업 유니바 솔루션스(Univar Solutions)가 미국 원료 기업 아메리칸 디스틸링(American Distilling)과 유럽·중동·아프리카(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EMEA) 지역 독점 유통 파트너십을 확대했으며, 아메리칸 디스틸링의 위치하젤(Witch Hazel)* 추출물 제품군의 EMEA 독점 유통권을 획득함

* 하마멜리스(Hamamelis)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수렴 △항염 △항산화 효능을 지녀 화장품 및 제약 제형에 광범위하게 활용됨



- 이번 계약에는 알코올 무함유 옵션 및 맞춤형 등급 등 다양한 형태의 위치하젤 제품군이 포함되며, 유니바 솔루션스는 EMEA 고객에게 △현지 재고 △빠른 공급 가용성 △제형 개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유니바 솔루션스는 북미 지역의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EMEA 확장에 나섰으며, △뷰티 △퍼스널케어 △제약 분야 고객을 위한 식물 추출물 포트폴리오와 지역 내 유통 인프라를 강화함
- 아메리칸 디스틸링은 미국 약전(United States Pharmacopeia, USP)** 기준을 충족하는 위치하젤 추출물을 공급해 왔으며, 이번 협력으로 EMEA 고객의 제품 접근성과 공급망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 미국 의약품·의료기기의 품질 기준을 규정하는 공식 약전으로, USP 기준 충족 성분은 품질 및 순도 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음

- 이번 파트너십은 북미에서 검증된 위치하젤 원료를 EMEA 시장으로 확장하는 사례로, 클린 뷰티(Clean Beauty)와 천연 성분 트렌드를 반영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을 보여줌

[GlobeNewswire, 2026.06.17.; Market Screener, 2026.06.17.]

17 페디아트릭스 메디컬 그룹, 신생아·소아 전문 원격의료 서비스 ‘MD 텔레메디신’ 확대

- 미국 소아·신생아 전문 의료그룹인 페디아트릭스 메디컬 그룹(Pediatric Medical Group)이 신생아 및 소아 전문 원격진료 서비스 ‘MD 텔레메디신(MD Telemedicine)’을 확대하며, 중환자 분야에서 원격진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병원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있음



- 해당 서비스는 △신생아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상담 △모체태아의학(Maternal-Fetal Medicine, MFM)** △소아 심장학 등 분야에서 지역병원과 전문의를 연결해 24시간 원격진료를 제공함

* 미숙아나 저체중 출생아, 그리고 선천성 질환 및 호흡곤란 등 집중적인 관리와 특수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를 24시간 동안 전문적으로 돌보는 신생아 전용 중환자실

** 산부인과의 하위 전문 분야로, 고위험 임신과 태아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 치료 및 관리하는 의학 분야

- 전문의는 영상 검토 및 치료 계획 자문 등 실시간 원격 상담을 수행하며, △카트 △태블릿 △고정 카메라 등을 통해 환자 병실과 원격으로 연결됨
- 서비스의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병원 및 의료시스템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개인 대상 원격진료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과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존재함
- 페디아트릭스 메디컬 그룹은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서 전문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원거리 병원 이송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소개함

[AD HOC NEWS, 2026.06.16.;Pediatric, 2026.07.]

18 인도 케랄라주, ‘인도-아랍 커넥트 2026’ 개최해 중동 관광 교류 확대

- 인도 케랄라(Kerala)주가 중동 관광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코치(Kochi)에서 관광·여행업계 무역박람회 ‘인도-아랍 커넥트 2026(Indo-Arab Connect 2026)’을 개최함



- △아유르베다(Ayurveda)* △의료관광 △럭셔리 관광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아랍권 여행업계 관계자와 여행사,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임

* 인도 전통 의학 체계로, △약초 요법 △마사지 △식이요법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

- 또한, ①사우디아라비아 ②아랍에미리트(UAE) ③오만 ④카타르 ⑤쿠웨이트 ⑥바레인 ⑦이집트 ⑧요르단 ⑨이란 등 9개국 여행사 200곳과 △관광 △숙박 △아유르베다 △의료관광 분야 국내 바이어 500명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도 마련됨

- 케랄라를 비롯한 남인도 각 주와 스리랑카(Sri Lanka), 몰디브(Maldives) 소속 전시업체 300여 곳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랍권 9개국 대사 및 무역 대표단도 참석함

- 행사 종료 후 참가 여행사들은 9월 2일부터 9일까지 케랄라 전역의 △아유르베다 리조트 △의료관광 시설 △백워터(Backwater)** 관광지 △럭셔리 숙박시설을 둘러보는 ‘팸 투어(Familiarisation Tour)’를 진행함

** 케랄라주의 아라비아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거대한 자연 수로 및 석호 네트워크

- 케랄라 관광부 장관은 아랍 관광객이 케랄라 관광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케랄라 주지사가 8월 31일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임

[Media India Group, 2026.06.15.;Travel And Tour World, 2026.06.16.]

19 방콕 두싯 메디컬 서비스, 'BDMS 웰니스 클리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추진

- 태국 방콕 두싯 메디컬 서비스(Bangkok Dusit Medical Services, BDMS)가 'BDMS 웰니스 클리닉(BDMS Wellness Clinic)'을 예방적 건강검진 전문 기관으로 소개하며, △첨단 진단 △호텔급 서비스 △의료관광 패키지를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음
- 클리닉은 예방의학 및 항노화의학(Antiaging Medicine)에 초점을 맞춰, △장수 △뇌 건강 △심장 건강 △소화기 건강 △여성·남성 건강 등 테마별 프로그램에 ①검사 ②영상진단 ③전문의 상담을 포함함
- 병원이 아닌 호텔 투숙에 근접한 경험을 지향하며, △프라이빗 라운지 △컨시어지(Concierge)*식 예약 △방콕 시내 럭셔리 호텔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
- * 호텔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춰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전문 안내인이나 개인 비서
- 또한, 한 장소에서 △CT △MRI △초음파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등 영상진단에서 예방검진까지 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검진 비용은 검사 항목 및 전문 분야 포함 여부에 따라 태국 바트(Baht)로 차등 책정되며, 외국인 환자는 사전 견적 요청과 함께 의료관광 지원팀을 통해 △일정 조율 △통역 △사후 서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BDMS는 태국 관광청과 협력해 예방검진을 고부가가치 여행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웰니스 및 예방의학을 기존 병원 사업과 함께 회사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음



[AD HOC NEWS, 2026.06.15.;TTG Asia, 2026.06.29.]

20 KPJ 헬스케어, 2025 회계연도 실적 및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목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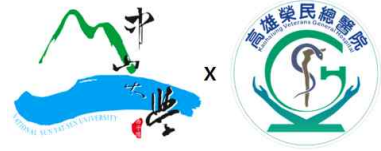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 의료서비스 그룹 KPJ 헬스케어(KPJ Healthcare)가 지난 6월 16일 제33차 정기 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AGM)를 개최하고, 2025 회계연도 실적과 함께 동남아시아 의료관광 선도를 목표로 한 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함
- 2025 회계연도 매출은 42억 6,000만 링깃(한화 1조 5,992억원)으로 전년 39억 링깃(한화 1조 4,642억원) 대비 9%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전 이익은 5억 6,300만 링깃(한화 2,114억원)으로 6% 증가, 법인세 후 이익은 4억 200만 링깃(한화 1,509억원)으로 10% 증가함
- 대표는 의료관광 부문이 지난해 그룹 매출의 6.2%(2억 6,300만 링깃, 한화 987억원)를 차지했으며, 전년 2억 3,200만 링깃(한화 871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고 소개함
- 또한, 업계 선두 기업의 의료관광 매출 기여율이 15%~20%에 이르며, 의료관광 비중을 8%~15%까지 끌어올릴 경우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함
- KPJ 헬스케어는 △병원 △외래진료센터(Ambulatory Care Centre, ACC)* △제휴 클리닉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허브 앤 스포크(Hub-and-Spoke)** 'KPJ 케어 네트워크(KPJ Care Network)'를 구축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경 간 진료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 * 입원하지 않고 당일 △진료 △검사 △수술을 받고 귀가하는 외래 환자 전문 센터
- ** 중앙에 위치한 거점(Hub)이 주변의 여러 지점(Spoke)을 연결하는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구조
- 2030년까지 수십억 링깃을 투자해 병상 수를 현재 약 4,000개에서 5,000개~6,000개로 확대하고, 세부 전문의 비중도 2023년 25%에서 현재 약 35%까지 증가시킬 예정임



[The Star. 2026.06.16.;New Straits Times. 2026.06.16.]

21 대만 국립중산대학교-카오슝 재향군인 종합병원, AI 헬스케어 협력체계 강화

- 대만 국립중산대학교(National Sun Yat-sen University, NSYSU)와 카오슝 재향군인 종합병원(Kaohsiung Veterans General Hospital)이 6월 17일 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연구와 임상자원을 통합해 AI 기반 헬스케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 이번 협력은 기존의 프로젝트 단위 협력을 장기적·제도적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양측은 2020년부터 △의대생 임상실습 △교원 시스템 △다학제 연구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음
- 협약에 따라 양측은 연구자원과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며, NSYSU의 △AI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반도체 역량 △병원의 임상 전문성을 결합해 진단 및 치료, 돌봄 과정에 AI를 적용할 계획임
- 카오슝 재향군인 종합병원은 NSYSU 의과대학의 임상교육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의학 △간호 △보건 계열 학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하고 디지털헬스 및 AI를 반영한 교육과정과 교원 연수를 공동 개발할 예정임
- NSYSU 부총장 겸 의과대학장은 이번 협력이 ①스마트 병동 ②정밀의료 ③노인의료 ④빅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두며, 대만 남부지역의 반도체·스마트기술 산업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함



[自由健康網, 2026.06.17.:Taiwan News, 2026.06.18.]

22 글로벌 치과관광 시장, 디지털헬스 통합이 필수요건으로 주목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퓨처마켓인사이트스(Future Market Insights)의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관광 시장에서 디지털헬스 통합이 단순 경쟁요소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치과관광 시장 규모는 2026년 114억 달러(한화 17조 4,112억원)에서 2036년 407억 달러(한화 62조 1,611억원)로 성장하며, 연평균성장률 1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클라우드 기반 환자관리시스템 △원격상담 △치료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AI 진단도구 등이 치과관광 분야의 주요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음
- 외국인 환자들은 △원격상담 △디지털 진료기록 열람 △치료 추적 및 사후관리 등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원 △치과기공소* △영상장비 등 임상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치과외사의 의뢰를 받아 환자의 씹기, 발음, 심미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과 보철물 △수복물 △교정장치 등을 제작 및 수리하는 전문 제작소

- 임플란트 시술에는 디지털 치료계획과 가이드 수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교정 분야는 투명교정 플랫폼(Clear Aligner Platform)**과 원격 모니터링, AI 기반 치료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됨

** △3D 디지털 스캐닝 △인공지능 치아 이동 설계 △클라우드 기반 치과외사-제조사 소통 시스템을 통합하여 투명교정 장치의 제작과 치료 과정을 관리하는 디지털 치의학 솔루션

- 대형 병원 그룹 및 치과 네트워크가 디지털 기술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 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 투자도 핵심 운영과제로 주목됨

[Future Market Insights, 2026.06.18.]

23 말레이시아 정부, 나디 센터에 원격의료 및 AI 건강검진 서비스 도입 확대

- 말레이시아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장관은 정부가 전국 국가정보보급센터(National Information Dissemination Centre, NADI)*의 기능을 확대하며, 원격의료 서비스와 AI 기반 건강검진 도구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전국 농어촌 및 소외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커뮤니티 허브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이니셔티브는 2023년 11월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초기 모듈이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 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단계임
- 통신부 장관은 사바(Sabah)주 켐포르나(Semporna) 지역의 NADI 센터를 사례로 언급하며, 해당 센터에 원격의료 시설과 혈당·혈압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들이 본토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사전 건강평가(Preliminary Health Assessment)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와 협력 중인 여러 기관이 망막 스캔 분석 및 종합적 건강상태 평가가 가능한 AI 기반 기기를 최근 도입했다고 언급함

** 통신, 방송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부문을 규제하고 진흥하는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의 핵심 규제 기관

- 통신부 장관은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행 중이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The Star, 2026.06.15.;Sinar Daily, 2026.06.16.]

24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대상 '원정출산' 네트워크 단속 강화

- 6월 1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비자 수백 건을 취소하고, 미국 병원 및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미수금* △의료책임 △감독 강화와 관련한 새로운 단속 지침을 전달함



* 환자가 진료나 치료를 받았으나 당장 병원비를 수납하지 못해 병원 측이 아직 받지 못한 진료비

-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는 이번 단속을 통해 서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던 원정출산 네트워크를 적발하였으며, 관련 외국인들의 B-1/B-2 방문비자(Visitor Visa)** 수백 건을 취소했다고 발표함

** 미국에 단기간 방문할 목적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 ①B-1은 상용 목적 ②B-2는 △관광 △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 목적의 방문에 적용됨

- 서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의 여행객이 위조 서류와 비자 '중개인(Fixer)'을 이용해 미국에서 출산 후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
- 또한, 유럽에서는 최소 6개 업체와 연계된 400건 이상의 비자 신청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신청자에게 영사 인터뷰 답변 요령을 지도하고 숙소 및 병원 분만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치는 2020년 국무부 규정과 2025년 출생시민권 제한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과 연계하여, 이민 정책과 여행업계 전반에서 원정출산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루어짐
- 따라서 인바운드 관광업계 옹호단체(Inbound Tourism Advocate)***와 병원 관계자들은 정당한 임신부 여행객까지 광범위한 단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이민제한론자(Restrictionist Policy Analyst)들은 조직적 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외국인 관광객의 자국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Newsweek, 2026.06.11.;thetraveler.org, 2026.06.16.]

무역통상

의료 인공지능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의료서비스

글로벌 행사

International Healthcare Week



8-10 July 2026 | QSNCC, Bangkok, Thailand

인터내셔널 헬스케어 위크

International Healthcare Week

개최도시 태국 방콕

행사일정 2026.07.08.~2026.07.10.

행사주제 하나의 장소, 세 개의 전시회, 무한한 헬스케어 비즈니스 기회

주요내용 △CPHI South East Asia △WHX Bangkok
△Medtec Southeast Asia 3개 전시회를 동시
개최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헬스케어 행사

바이오 아시아-타이완 전시회 2026

BIO Asia-Taiwan Exhibition 2026

개최도시 대만 타이베이

행사일정 2026.07.15.~2026.07.19.

행사주제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혁신, 세계를 움직인다

주요내용 아시아 최대 바이오텍 행사로 △세포치료 △정밀의료
△제약 장비 등 주제별 세션과 글로벌 파트너십 매칭을
제공하는 아시아 바이오산업의 핵심 플랫폼

AHRMM26 연례 콘퍼런스 & 전시회

AHRMM Conference & Exhibition 2026

개최도시 미국 샌안토니오

행사일정 2026.07.26.~2026.07.28.

행사주제 헬스케어 공급망 리더들의 연결·혁신·발전을 위한 플랫폼

주요내용 미국병원협회(AHA) 산하 AHRMM이 주관하는 헬스케어
공급망 분야 북미 최대 연례행사로 1,250명 이상이
참가하며 ①소싱 ②테크놀로지 ③임상적 가치 분석
④운영 관리 4개 트랙, 40개 이상의 세션 운영

제48차 IEEE 의학생명공학회 국제콘퍼런스

IEEE EMBC 2026

개최도시 캐나다 토론토

행사일정 2026.07.26.~2026.07.30.

행사주제 공학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의료

주요내용 80개국 이상의 연구자·임상의·산업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생체신호처리 △의료영상 △웨어러블 센서
△바이오로보틱스 △디지털헬스 등 11개 주제 트랙 운영

2026 병원 약국 바이어 콘퍼런스

2026 Hospital Pharmacy Buyer Conference

개최도시 미국 올랜도

행사일정 2026.08.09.~2026.08.10.

행사주제 공급자와 바이어를 하나로

주요내용 △ACPE 인증 CE 크레딧 교육 세션 △네트워킹
△공급업체와의 1:1 매칭 방식인 바이어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원가 절감 △신제품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 병원 약국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

